

# ? 질문을 하는 순간 수많은 가능성이 열린다

왜? 호기심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을까

알베르토 망겔 지음·김희정 옮김



호기심 문장부호인 물음표(?)는 1566년 베니스의 출판가 알두스 마누티우스가 '인테르폰젠디 라티오'라는 책을 펴내면서 최초로 쓰였다고 한다. 이 기호의 모양은 특이하다. 왼쪽 아래쪽에 찍힌 점에서 시작해 오른쪽 위로 계단처럼 대각선으로 구불구불한 선이 모양의 된다. 질문을 통해 높은 곳으로 가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사실 물음표(?)는 답에 대한 기대보다 질문 행위 자체에 더 큰 의미가 있다. 답을 알아가는 과정, 즉 질문을 던짐으로써 궁금한 것을 알아내고자하는 의도에 무게중심이 놓여 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호기심을 보인다. 갓난아이는 주변의 모든 것이 신기해 보인다. 신비로운 세상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은 용알이를 때려마차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이어진다.

인류가 탄생한 순간부터 호기심은 지식의 추동력을 높이는 기제가 됐다. 궁금한 것에 대해 '왜?'라고 질문하는 행위는 인류 역사에서 다양한 얼굴로 모습을 드러냈다. 불가능한 것을 생각하고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은 적잖은 실패를 낳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인류는 세상을 다양하면서도 역동적으로 변화시켰다.

호기심과 인간의 지적 여정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룬 책이 발견됐다.

'밤의 도서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등의 저자 알베르토 망겔이 펴낸 '왜? 호기심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을까'는 인

류의 진보를 견인했던 호기심을 조명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서장이자 독서광인 저자는 단테의 '신곡'부터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까지 호기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특히 '신곡'은 책의 모든 장을 관통하는 핵심 작품이다. 단테의 여정, 다시 말해 저승세계를 여행하며 인간의 죄악과 표본을 드러내는 과정이 호기심의 구동력이 됐음을 알 수 있다.

"'신곡'은 중첩문체 시인 동시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묘한 뉘앙스를 가졌고, 명백함과 암묵적인 함축성, 정통과 신학과 불온한 해석, 엄격한 위계질서와 평등한 우정이 모두 공존하는 작품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 작품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어휘는 라틴어나 프로방스어, 기존의 구어나 신어로 된 시, 오래된 논문이나 어린이의 주절거림, 과학 용어와 꿈을 묘사하는 언어 구분 없이 모두 차용했다."

사회적 규율과 관습에 얽매어 있기에 많은 이들은 목적이 분명한 질문을 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어릴 때부터 아무런 제한 없이 상상하고 질문할 수 있는 훈련보다, 질문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만 집중하는 교육을 받아왔다.

호기심은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태도(胎土)나 다름없다. 감성과 지식을 동원해 작가들이 추구하는 지식은 그들이 인지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 이상의 긴장 사이에 드러워져 있다. 불완전한 지식은 책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를 태우고 밀레볼제로 내려가는 게리온. 윌리엄 블레이크가 '신곡' 삽화로 그린 102점의 수채화 중 하나.

을 읽는 우리에게 전달되면서 현실과 책안의 현실 사이를 압박한다.

물론 책이 명쾌한 해답을 주지는 않는다. 경험하는 사건들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강렬한 기억도 기억하는 대상과 동일할 수 없으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표현하는 말도 모든 것을 아우르지 못한다.

책에서 던지는 호기심에 관한 근원적 질문을 쫓아보면 지나온 과거, 발들 딛고 선 현재, 상상할 수 있는 미래 등 인간 탐색 능력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부터 당장 호기심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자. 그리고 질문을 질문하자. <위즈덤하우스·3만5000원>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 속도와 소음의 시대 ... 마음 속 침묵을 빚어내는 법

자기만의 침묵

엘링 카게 지음·김민수 옮김



그는 50일 동안 어떤 무선 연락도 취하지 않고, 단 하나의 생명체도 보지 못한 채 매일 오로지 남쪽을 향해 스키를 탔다. 가장 힘든 건 기온이 영하 50도에 이르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 고통스러웠던 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일이었다. 방대하고 단조로운 풍경 속에서 자신이 만들어 낸 소리 외에 인간의 소음 이라곤 전혀 없는 곳, 그 거대한 백색의 세계인 '남극'의 얼음 위에서 그는 '침묵'을

받았다. 1990년 그는 설상 스쿠터, 개털매, 식량 저장소도 없이 세계 최초로 북극에 도착했고 1993년엔 역사상 최초로 혼자, 그것도 걸어서 남극에 발을 디뎠다. 1994년에는 에베레스트 정상에도 올랐다. 그는 세계 최초로 남극점, 북극점, 에

베레스트를 정복한 이로 기록됐다.

변호사이자 CEO, 미술품 수집가이기도 한 엘링 카게가 펴낸 에세이 '자기만의 침묵-속도와 소음의 시대, 남극과 에베레스트 등 극한의 공간에서 절대 고독을 느꼈던 그가 독자들에게 '마음 속 침묵을 빚어내는 법'에 대해 던지는 33개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담은 책이다.

저자에 따르면 "침묵은 파분하고 배타적이고 불편하며 때로는 무겁기까지 할 수 있다. 침묵이 외로움이나 슬픔의 전조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침묵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사고방식의 비

밀을 풀어주는 열쇠가 되고,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실제적인 원천이 될 수도 있다. 남극이라는 고립된 곳에서 '절대 고독'을 느꼈던 그는 '침묵'을 받아들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됐다"고 말한다.

책에서는 자신의 경험 뿐 아니라 다양한 인물들이 변잡한 일상을 벗어나 자기만의 침묵을 찾아가는 과정도 보여준다. 말년에 귀머거리가 돼 '소리'와 단절됐던 베토벤을 비롯해 아리스토텔레스, 비트겐슈타인, 키에르 케고르, 바쇼, 존 케이지, 몽크, 마크 로스코, 스타달, 올리버 색스 등 철학, 음악, 음악, 미술을 망라하는 다양한 분야 명사들과 그들의 저서를 통해 '침묵'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민음사·1만3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열정의 배신=지은이 칼 뉴포트는 벤처 투자자,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방송작가, 코미디언, 기업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뮤지션, 과학자, 고고학자 등 다양한 직업에서 큰 만족감을 이끌어내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3가지 원칙을 발견해 냈다.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실력을 쌓아라', '지위보다 자율성을 추구하라', '작은 생각에 집중하고, 큰 실적으로 나아가라'가 그것이다. <부키·1만5000원>



▲짜질한 악마=러시아 상징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표도르 솔로구프는 1907년 '짜질한 악마'를 출간하며 성공을 거뒀다. 이번 번역은 전년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모스크바 교육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이영의씨가 맡았다. 작품 속에 언급되는 러시아 문화, 문학, 문인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한 설명을 붙였고, 작가 솔로구프를 더욱 깊숙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해설을 '작가와 대화' 형식으로 수록했다.



<새움·1만4500원>

▲한국 교육 제4의 길을 찾다=한국 교육 70년의 발자취를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쾌하게 제시하는 지은이는 한국 교육이 제4의 길에서는 더 이상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라 협력적이고 배려하는 인간을 길러야 한다고 말한다. 또 학생의 경험과 관심이 존중받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인다. <살림터·2만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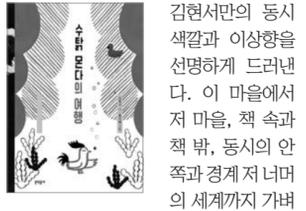
▲워런 버핏 라이브=워런 버핏과 그의 평생 파트너 찰리 멩거가 함께 진행하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의 질의응답 내용을 모두 기록한 유일한 책. 미국에서 투자 자문 회사를 경영하는 두 저자는 1986년부터 2015년까지 30년간 버크셔 주주총회에 매년 참석해 수 시간 동안 이루어진 질의응답을 꼼꼼하게 받아 적었다. <에프엔미디어·2만8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너는 누구니?='내가 새라면 어떤 새일까?' 아이들에게 개인의 다양한 개성에 대해 알려준다. 다채로운 색감의 숲속에서 만나는 새들은 자아에 대해 생각해 보고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것 도록 도와준다. 2014년 그랑드슬 어워드에서 작가상을 받은 프랑수아 로리 코헨이 글을 쓰고 마조리 베알이 그림을 그렸다. <금동이책·1만3000원>



▲외계인 디토=지구와 가까운 어느 작은 별에 사는 외계인 디토가 매일 심심할 때마다 망원경으로 다른 별을 구경한다. 디토는 자신이 사는 곳이 아닌 다른 별에 대해 늘 궁금한 게 많다. 어느 날 디토는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지구별을 관찰하다 나무를 발견한다. 디토는 지구에 가서 나무를 데려올 것이라 결심을 하고, 지구에 내려가 한 아이를 만나게 된다. <쉽어린이·1만2000원>



▲수탉 몬다의 여행='수탉 몬다의 여행 1'부터 11까지 연작시 11편은 지은이

김현서만의 동시 색깔과 이상향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 책 속과 책 밖, 동시의 안쪽과 경계 저 너머의 세계까지 가벼운 걸음으로 드러내는 과정은 읽는 이의 흥을 돋운다. 화가 홍지혜의 그림은 활기를 불어넣는다. <문학동네·1만500원>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 째야?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 속옷 장수기업  
가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다른 욕망 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이노산,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